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2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 활동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실시하는 소매 에너지 서비스업계 전반의 검토 활동에 이어 소매 에너지 서비스업에서의 부당한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일반 주민 및 소상공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검토서를 통해 여러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가 전기 및 가스 서비스 요금을 과다 청구할 뿐만 아니라 절약분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조치로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위원회 규제를 위반하는 업체는 뉴욕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과도한 요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소비자들을 상대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처럼 부도덕한 기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악덕 업주들을 뿌리 뽑고 뉴욕주민들이 이처럼 부당하고 부정직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또는 소상공인들이 비용 절감을 보장 받지 않거나 공급량의 최소 30%는 재생에너지에서 제공받지 않는 한 이들이 새로운 ESCO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ESCO가 뉴욕주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뉴욕 사업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고객에게는 "Do Not Call"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처럼 원치 않는 침입을 하지 않는 "Do Not Knock" 법칙이 도입되었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서의 방문 판매를 규제하는 현장에서의 사용 유도 규칙을 무시할 경우 뉴욕 사업 허가권이 취소될 것입니다.

각 ESCO의 CEO, 또는 담당자 역시 회사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문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Audrey Zibelma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 고객들이 ESCO가 제공하는 전기 및 가스 공급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공격적이고 부정직한 ESCO 마케팅으로 인해 받지도 않은 에너지 요금을 절약해서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서비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과 같이 고객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쁜 회사들도 있어서 이들이 고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위원회는 또한 보헤미아를 기반으로 하는 **Engineered Energy Solutions**이라는 회사가 필수 준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에서의 영업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위원회는 또한 네 곳의 다른 회사들의 뉴욕 영업권을 취소하였고, 이달 초에는 역사적인 가격책정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하자는 업계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조치에 따라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고객들을 하나로 모으거나 에너지 효율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고객들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검토할 것이며, 또한 제공이 금지되더라도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제공할 것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든 후라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수 당 하루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금 권한을 ESCO에 적용할지 여부와 회사가 이행보증서를 벌금 또는 환불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서비스를 받은 후 주민 소비자가 회사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문제도 판단할 것입니다.

뉴욕의 현지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기 및 천연가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판매 및 전달 시스템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체가 발전소에서 전기와 천연가스를 구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기와 천연가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뉴욕주는 소매 에너지 제공업체가 유틸리티 업체들과 경쟁하여 전기 및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효율 서비스 및 재생에너지 공급과 같은 기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전기 및 천연가스를 제공할 수 있는 ESCO 업체는 약 200곳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주민 및 소상공인 소비자의 20% 이상이 소매업체가 제고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약 700만 명의 주거용 전기 고객과 약 430만 명의 주거용 천연가스 고객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검토 결과 이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전기 및 천연가스 요금을 매우 많이 과다청구했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에서 나온 최신 가격책정 데이터를 보면 문제가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 Hudson Valley 소재 네 개 업체는 Central Hudson가 부과하는 전기료의 두 배 이상을 부과했고, 또 다른 회사는 천연가스 요금을 세 배나 부과했습니다;
- 한 뉴욕시 업체는 전기료로 Con Edison의 세 배 이상을 부과했고, 몇몇 업체들은 천연가스 요금을 두 배 이상 부과하였습니다;
- Upstate New York의 여러 ESCO는 National Grid의 전기 요금의 두 배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 Finger Lakes 지역 소재 한 업체의 변동 요금안은 Rochester Gas & Electric가 전기료로 부과하는 요금의 8배나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검토를 통해 고객들을 속여 폭리를 취하는 나쁜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지 유틸리티를 대표하는 척하는 것과 같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도 다수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뉴욕주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보호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지난 12월, Cuomo 주지사는 이 위원회의 Consumer Advocate이 실시한 개별 조사 결과 1,566명의 소비자들이 뉴욕주 최대 ESCO의 한 곳인 Ambit Energy로부터 950,7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환급 받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약탈적인 판매 전술 및 예상 외의 높은 요금과 같은 문제의 고객 민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이처럼 부당한 비즈니스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신 활동이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